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10호

2024.07.25(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권현구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10차 지부교섭 : 사측 제시안 없음]

해도 너무한다

한 달 만에 교섭 재개했으나 사측 제시안 없어



한 달 만의 교섭, 15분 만에 끝

7월 25일(목) 한온시스템에서 10차 지부 교섭이 열렸다. 6월 20일 교섭결렬 이후 한 달 만에 교섭이 열렸다. 그러나 사측은 제시안 없이 교섭이 참석했고 15분만에 끝났다. 중앙교섭도 의견접근 하고 타 지부들에서도 의견접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대전충북지역 사용자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렸다.

통일요구안과 최저임금 양보없다!

권현구 지부장은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한 내용과 금속산업최저임금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성훈 사무국장은 “올해 교섭 상황을 지부

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동안 대전충북지역에서 쌓아온 노사 상생의 문화가 깨질 위기다. 회사는 잘 못느끼고 있는 것 같다. 8월 교섭 기대 안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해서 투쟁 준비하겠다.”며 사측을 규탄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만족할만큼 될 때까지 투쟁한다!

올해 교섭은 타결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쟁취할 때까지 투쟁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지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며 8월에도 총파업 등 모든 투쟁을 동원한다. 될 때까지 총파업!

* 차기 교섭 : 8/8(목) 14:30, 장소 추후 공지

10차 교섭 속기록

기대 안한다! 투쟁 준비하겠다!

사 : 날씨가 기온도 높고 폭우도 쏟아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 지난주에 중앙교섭 의견접근, 현대차, 지부들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지부도 속도 내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견 합치점을 찾기가 어렵다.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노 : 날씨가 상당히 무덥다. 무더운 만큼 현장 노동 강도도 올라가고 하계휴가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안전과 건강 위해 사측도 현장 들여다봐야한다. 노사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상생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부가 2차 총파업까지 하고 오늘 만났다. 중앙교섭 의견접근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결정됐고 내년 법정최저임금도 결정됐다. 계속 중앙교섭 상황 핑계됐던 것 생각하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발맞춰 제시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렬하고 한달 됐다. 제시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노측 교섭위원은 중앙교섭 의견접근 내용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단서조항 삭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제시안 제출할 때 이 부분 엄두해서 제출하셔라. 하향된 제시안은 결코 받지 않을 생각이다. 아직 쟁의권 살아있다. 지부 중에 유일하게 2차 총파업까지 한 지부가 우리 지부다. 싸울 여력있다. 교섭 타결 시기 상관없이 만족할만큼 요구안 쟁취할 때까지 할 생각이다. 준비된 제시안 있으면 제출해달라.

사 : 제시안 준비를 못했다. 9개사가 공통으로 안을 내야하는데 사업장 사정상 잘 안된 부분이 있다. 사별로 내부 일정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제

한된다. 제안 드리면 8월 7일까지 휴가기간인데 지부교섭 8/8일에 축소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날 최대한 마무리지을 수 있게 안 제출하겠다.

노 : 교섭 종료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축소교섭 할 수도 있다. 축소교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간보는 행태는 교섭문화라고 볼 수 없다. 머리 맞대고 한방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려면 한번에 끝날 수준으로 제시안 준비하셔라. 임금인상 제출하시고, 통일요구안, 최저임금 단서조항 삭제 등 준비하면 된다.

그동안 지회보충교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지부교섭 가지고 1, 2차 파업 이후에는 크게 투쟁 배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다. 통일, 중앙요구는 전향적으로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렵지 않은 내용도 양보해서 마련된 내용이다. 근데 이것도 제출 못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중앙교섭 합의 수준에서는 절대 후퇴는 없다. 최저임금 단서조항 삭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 9개사 중에 1~2개 빼놓고는 보충교섭도 진도가 안 나간다. 지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회사는 못 느끼는 것 같다. 20년간 노사간에 상생의 문화가 깨질 위기에 있다. 차기 교섭에서 축소교섭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지회 노사관계도 이 자리에서 좌우될거다. 8/8일 기대 안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해서 투쟁 준비하겠다. 의견접근할 생각 있으면 제시안 성실하게 제출해달라.